고용노동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6.(월) 09:00 (2026. 11. 16.(월) 석간)

퇴직연금 기능강화, 노사정 합의정신을 입법단계에서도 이어 나가겠습니다.

-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 개최, 「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」 논의
- '26.2.6. 노사정 공동선언의 뜻을 모아 「퇴직급여법」 개정까지 지속 협력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**11월 16일(월) 8시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**를 **개최**했다.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**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끈 주체들이 다시 모여** 합의 정신을 구체화한 **「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」에 대한 의견**을 나누고 향후 **입법과정**에서도 **협력을 이어나가기** 위해 마련됐다.

* **(노)** 한국노총 본부장, 민주노총 국장 **(사)** 경총 본부장, 중기중 실장
(정) 노동부 차관, 근로기준정책관 **(전문가)** 노동연

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9일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,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·활성화,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방안을 담은 **「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」을 발표**했다. 이어 11월 6일 **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**하는 등 **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.**

이번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「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, **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**에 대해 **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**했다. 참석자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**현장에 원활히 연착륙할** 수 있도록 **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피고,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**이 **각자의 장점**을 살려 **균형있게 발전**할 수 있도록 **지원**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 특히,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**입법 단계에서의 협력 방안**도 **논의**했다.

권창준 차관은 "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**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**"라며, "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**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**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남성욱 (044-202-7554)
		담당자	사무관	이혜민 (044-202-765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